

◀기쁜 우리 날들▶ **아! 대한민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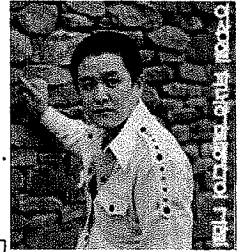
- *평균 아이큐가 세 자리를 넘는 3국가 중 하나인 나라,
- *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,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,
- *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 버리는 놀라운 나라,
- *자국축구리그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 무척 쓸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 부터 '조작'이라는 말까지 듣는 나라,
- *문맹률이 1% 아래인 유일한 나라,
- *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 비아냥 받던 유대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 버리는 엄청난 나라,
- *미국이랑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 하나인 나라
- *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,
- *매일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10시,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,
- *양치질을 하루 3번 하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,
(다른 나라에서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번,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)
- *음악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 한 나라,
- *세계 각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실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나라,
- *중국 옆에 있던 나라 중 한번도 지도에서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었던 유일한 나라
- *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대씩 있는 큰 사람들의 나라,
- *IMF위기를 2년 남짓이라는 가장 단기간에 벗어나 버리는 유일한 나라,
- *아이큐 전 세계 1위인 나라(홍콩은 나라가 아님을 생각한다면...)
- *유럽통계에서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예쁜 나라 1위 한국,
- *세계 몇 안 되는 단일민족 국가,
- *세계 10대 대도시 중에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(서울 세계 4번째 대 도시)
- *도시의 고층빌딩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10개의 나라 중 하나,
- *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을 '쪽바리' 라며 무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짱 있는 나라,
- *조기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실력은 100위권수준의 나라,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 끝내주게 좋은 나라,
- *세계 10번째 경제, 6번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, 개발도상국, 중진국이라며 선진국을 본받자는 언제나 발전적인 나라.....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.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 섬김과 봉사 *익명성 - 명예
제8권 20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5월 21일
☎ 369-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**가수 이상열**



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'못 잊어서 또 왔네' '아마도 빗물 이겠지' '사랑과 우정' 등의 노래로 당시 최고 인기가수 남진. 나훈아씨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이상열씨(58). 그러나 도박에 빠져 살다 급기야 79년 '가수 이상열 낀 역대 도박단 검거'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장식하고



81년 도망치듯 미국으로 가서 마약까지 손댔다. 그런 그가 장로가 되어 돌아왔다. 독실한 신자가 된 지는 이미 20여년. 이번엔 정말 큰 마음 먹고 복음 성가 앨범을 발표했다. 가수의 추억은 예전에 아득해졌지만 성가만큼은 '불러야지 불러야지'하면서도 망설여왔다. 영혼으로 찬양해야 하는데 표현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.

그를 새 삶으로 이끈 건 역시 '좋은 아내'였다. 83년 선배 한 명을 달랑 증인으로 세우고 결혼했다.

"아내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 하나를 두고 설교하는 것 같고,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흘렸어요.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곧 알았지요."

예배는 열심히 드렸으나 생활은 여전히 쪼들렸다. 빛에 시달리다 LA 한인타운 분식집 종업원으로까지 일했다. 어느 날 이주일, 남진씨가 분식집으로 찾아왔다. 궁상떨지 말고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. 송대관, 태진아씨가 미국서 고생하다 한국에 돌아와 한창 인기를 끌 때였다.

"안 간다고 했어요.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기쁜 걸 알았으니 세상에 다시 나갈 이유가 없었지요. 밑바닥부터 인생을 다시 살게 그것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라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!"

"가수 출신인 율향기 목사가 '이상열이가 신자라고?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'고 했는데 몇 년 전 윤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했습니다."



◀그리운 흑백 TV▶ **국민교육헌장**
"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"는 구절은 아직도 생생합니다. 우리는 날때부터 굉장한 사명감을 안고 태어난것처럼 조화때마다 낭독되는 헌장을 들어야 했습니다. 어느 날인가부터 조화도 '애국조화'로 명칭이 바뀌었지요. 코흘리게 학생들과 마주서 계시던 선생님들은 조화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 까가며 늘 궁금해 지는 그리운 시절입니다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하나님께
무릎꿇지 않으면
사람에게
무릎꿇게 된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아끼는 사람은
가난해 보이면서 알부자가 되고
해픈 사람은
부자로 보이면서
가난해지는 사람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갈 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감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12장	다 갈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16(시63편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찬 송 Hymn	189장	다 갈 이
기 도 Pray		김순자 권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고린도전서 11:17-34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 십자가성가대
설 교 Sermon	교회, 사랑의 공동체	차정규 목사
찬 송 Hymn	512장	다 갈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갈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◆5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안 내
30	정희자	한상순	<본당> 김순자 정희자
7	현석호	강동호	
14	김교섭	강보원	
21	김소연	강 욱	<현관> 이재영 박일영
28	김순자	강은미	

◆5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7 어린이주일	월초새벽기도회(1) 남성만의 르네상스(5) 구역예배(12)
14 어버이주일	믿음의어머니기도회(16) 피택자교육(19)
28 이삭줍기주일	수요수도원(기도회)(31)

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회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바른 판단이 셉니다
주일예배. 아동, 학생: 12:30분 수요일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청년부: 토 오후 5시

1. 교우소식
 <등록> 서금옥 성도(3구역.5여선)동규.필규 ☎368-4816. 23 Emily Pl. City
 <결혼> 고경아 양(고성일, 김봉희 집사 장녀).유지형 군
 *일시: 27일(토) 오후 3시
 *장소: ST. Mary Church(Parnell Rd & St Stephens Ave. Parnell)
 *교우 여러분께 주보를 통한 초청으로 청첩장을 대신합니다.
 꼭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-혼 주-
2. 오늘 설교: 차정규 목사(신양교회). 신림동과 난곡지역 도시빈민을 위한
 특수목회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.
3. 『수요 1일부흥회』 금주 수요일예배는 특별강사초청 “수요1일부흥회”를 갖습니다.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하시면 은혜에 잠기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
 <감사> 이덕진 목사(서울 “명문교회”)
 *특별찬양인도: 제4남선교회. 연습 많이 했습니다. 찬양에서부터 은혜의 부흥회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.
4. 모임: 제1남선교회 (Tea Time을 하면서...)
5. 성전건축을 위한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.
 *어제도 교회당에서 다른 행사로 찬양연습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알려 줄 때 실망하던 학생의 모습,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할 일 못해준 것 같아 초라한 부끄러움이 잔뜩 들었습니다.
6. 새벽기도회 <금요일 새벽 5:55분>
 *하루를 시작 하기 전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는 성도,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.

<p>◀착한 시인▶ 오 월 유자호</p> <p>왈락 눈물이 솟구쳐 흐를 것 같다 한 이틀 비 내리더니 세상의 먼지 모두 씻기고 투명한 바람 서울에서 개성의 송악이 보인다 이렇게 깨끗한 날을 선물한 날</p> <p>신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한둘을 데리고 간다</p>	<p>찬란한 슬픔의 가을 햇빛이 너 무 강해 눈이 부시던 날, 눈 마주치기도 미안하고 위로의 말 건네는 것도 교만 같아 그 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. 누구나 혼자 꿇고 삭혀야만 하 는 슬픔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 다. 그럴때 울고 싶어지면 울고 그 리워 하고 싶으면 가슴 부여잡 고 그리워 하십시오. 그리고 그 슬픔을 그 날의 햇빛처럼 찬란하게 남겨 놓으십시오. 후 에 슬픔이 나를 선하게 만든 표백제였음을 알 것입니다</p>
--	--